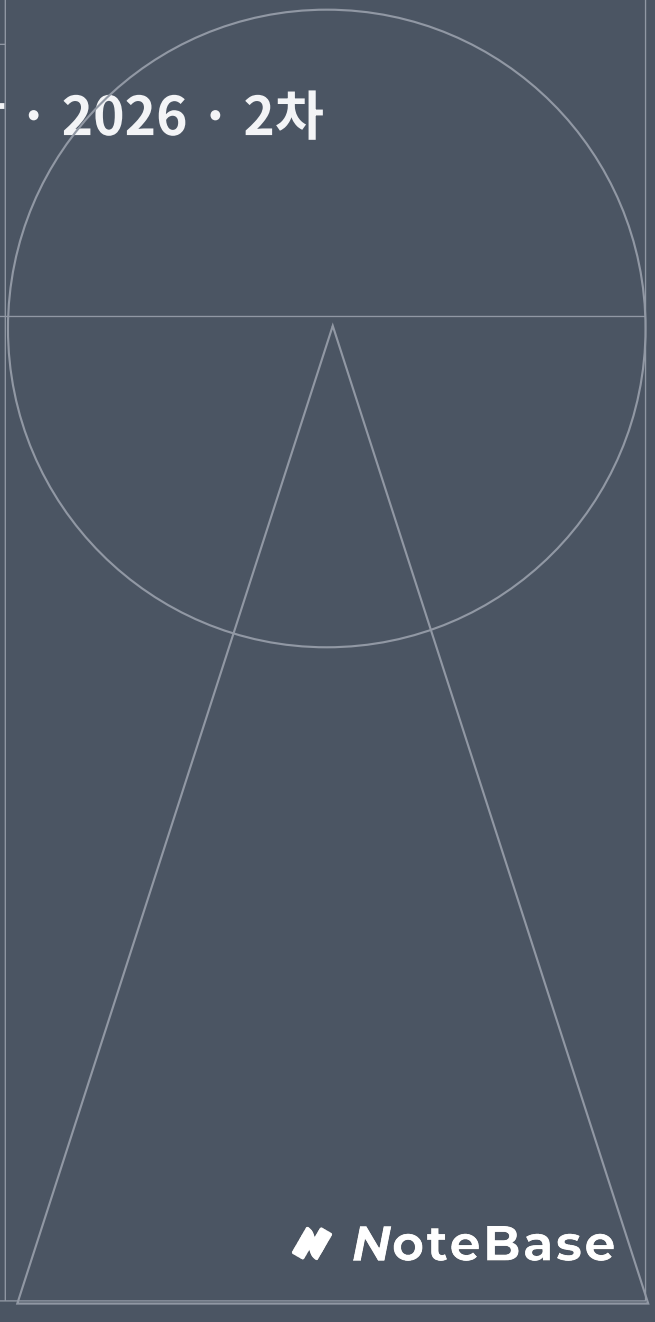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6 · 2차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6 · 2차

공무원/국가직/7급 · 회계학 · 2026 · 2차

문 1. 재무제표의 작성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더라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한다.

② 부적절한 회계정책은 이에 대한 공시나 주석, 설명 자료로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한다.

④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더라도'가 잘못되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기준을 준수했다는 사실을 주석에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한다는 기술은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부 요구사항만 충족한 재무제표를 기준에 따라 작성했다고 기술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일부 충족하더라도'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로 고쳐야 한다.

② O: 회계정책은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때 적용하는 원칙과 방법이다. 부적절한 회계정책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주석 등에 밝혀도 **회계처리 자체의 부적절함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적절한 회계정책을 선택하고 적용해야 한다.

③ O: 공정한 표시란 거래와 사건의 영향을 자산·부채·수익·비용의 정의와 인식기준에 따라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와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 공시도 제공한다.

④ O: 계속기업은 기업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도 영업을 계속한다는 전제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계속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는지 평가**해야 한다.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면 계속기업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 (주)한국이 20×1년 말 다음의 차입금 이자에 대한 수정분개를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 재무제표 요소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 20×1년 4월 1일 은행으로부터 ₩5,000,000을 1년간 차입하였다.(이자율 연 6%, 이자는 월할 계산)
◯ 이자는 만기일인 20×2년 3월 31일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① 비용 ₩300,000 과소계상, 부채 ₩300,000 과소계상
② 자산 ₩225,000 과대계상, 수익 ₩225,000 과소계상
③ 비용 ₩225,000 과소계상, 부채 ₩225,000 과소계상
④ 당기순이익 ₩225,000 과소계상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이자를 만기에 지급하더라도 20×1년에 발생한 9개월분은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누락하면 비용과 부채가 각각 **225,000원 과소계상**된다.

계산 과정

발생 기간: 발생주의에서는 현금 지급 시점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한다. 이자는 20×2년 3월 31일에 지급하지만, 20×1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9개월분은 20×1년의 이자비용이다.

이자 계산: 차입금은 5,000,000원이고 연이자율은 6%이므로 1년분 이자는 5,000,000 × 6% = 300,000원이다. 월할 계산하므로 이 중 9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은 $300{,}000 \times \frac{9}{12} = 225{,}000$원이다. 이는 연말까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하지 않은 이자이다.

필요한 수정분개: 차변에 이자비용 225,000원, 대변에 미지급이자 225,000원을 기록한다. 이자비용은 당기의 비용이고, 미지급이자는 **이미 발생한 이자를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부채**이다. 현금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수정분개로 자산이 변하지 않는다.

누락의 영향: 수정분개를 반영하지 않으면 이자비용과 미지급이자가 빠져 비용과 부채가 각각 225,000원 과소계상된다. 비용이 적게 기록되므로 당기순이익은 225,000원 과대계상되며, 수익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비용과 부채가 각각 225,000원 과소계상된다는 ③의 내용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3. (주)한국의 20×1년 결산 과정에서 확인된 다음의 사항을 반영할 경우,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 당기 발생 미지급광고비 ₩15,000 기록 누락
◯ 임대료수익 ₩100,000 중 ₩30,000은 차기 귀속분
◯ 결산 전 소모품 계정 잔액은 ₩50,000이며, 20×1년 말 실사 결과 미사용 재고 ₩10,000을 확인함
◯ 20×1년 초 기계장치를 ₩2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즉시 사용하였으나 감가상각하지 않음

① ₩55,000 감소
② ₩65,000 감소
③ ₩85,000 감소
④ ₩105,000 감소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결산 수정으로 비용은 75,000원 늘고 수익은 30,000원 줄어든다.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므로 **총 105,000원 감소**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당기순이익은 당기에 귀속되는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누락된 당기 비용을 추가하거나 차기 수익을 제외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한다.

미지급광고비: 광고비 15,000원은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당기에 발생한 비용**이므로 광고비와 미지급비용을 각각 인식한다. 비용이 15,000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15,000원 감소한다.

임대료수익: 기록된 100,000원 중 30,000원은 **차기 귀속분**이므로 당기 수익에서 빼고 선수수익으로 처리한다. 당기 임대료수익은 100,000 − 30,000 = 70,000원이며, 수정 전보다 수익이 30,000원 줄어 당기순이익도 30,000원 감소한다.

소모품비: 결산 전 소모품 계정에 남아 있는 50,000원 중 기말 미사용액 10,000원만 자산으로 남긴다. 차액인 50,000 − 10,000 = 40,000원은 **당기에 사용한 소모품**이므로 소모품비로 처리한다. 비용이 40,000원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은 40,000원 감소한다.

감가상각비: 원가모형에서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감가상각대상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한다. 기계장치는 **연초에 취득하여 즉시 사용**했으므로 월할상각하더라도 당기에는 12개월분을 반영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200,000-0}{10}=20,000$원이다. 누락된 감가상각비 20,000원과 감가상각누계액을 인식하므로 당기순이익은 20,000원 감소한다.

합계: 광고비·소모품비·감가상각비의 증가액은 15,000 + 40,000 + 20,000 = 75,000원이다. 여기에 임대료수익 감소액 30,000원을 더하면 당기순이익 감소액은 75,000 + 30,000 = 105,000원으로, ④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4. 다음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중앙관서 A의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와 관련한 자료이다. 재정운영순원가는?

구분	금액	구분	금액
프로그램수익	₩ 150,000	비배분비용	₩ 50,000
비교환수익	₩ 120,000	관리운영비	₩ 20,000
프로그램총원가	₩ 450,000	비배분수익	₩ 80,000

① ₩ 170,000

② ₩ 290,000

③ ₩ 300,000

④ ₩ 410,000

정답 2번

공통 해설

프로그램총원가 450,000원에서 프로그램수익 150,000원을 뺀 프로그램순원가는 300,000원이다. 여기에 **관리운영비 20,000원과 비배분비용 50,000원을 더하고 비배분수익 80,000원을 빼면** 재정운영순원가는 290,000원이다. 비교환수익 120,000원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1. 프로그램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ODQr1pyM9tamF4IicltVFmrZB-rM_f_c.webp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별 재정운영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

https://d2u7om5rih5x7z.cloudfront.net/ox-images/drive-repair/1gKkXB6g8oX0losD1xWjt0raNUXwpMHAt.webp

NoteBase

문 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순자산과 부채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④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기본순자산, 고정순자산 및 특정순자산으로 구분한다.

정답 4번

①

국가의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부채의 정의와 구분)
② 부채는 차입부채, 충당부채 및 기타 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개정 2024.7.31>

②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③

국가의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순자산의 정의와 구분)
①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한다.

NoteBase

④

지방자치단체의 순자산은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선지의 '기본순자산'은 '일반순자산'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순자산의 분류)
①순자산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용도를 기준으로 고정순자산, 특정순자산 및 일반순자산으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6.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자기주식 관련 거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모든 거래는 현금 거래이며,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에서 차감한다)

◯ 3월 15일: 자기주식(보통주) 500주를 주당 ₩800에 최초로 취득
◯ 6월 30일: 자기주식(보통주) 300주를 주당 ₩1,000에 처분
◯ 9월 15일: 자기주식(보통주) 100주를 주당 ₩700에 처분

① 3월 15일 분개
(차) 자기주식 ₩400,000 (대) 현금 ₩400,000

② 6월 30일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은 당기손익(영업외손익)에 반영된다.

③ 9월 15일 분개
(차) 현금 ₩70,000 (대) 자기주식 ₩80,000
(차)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④ 20×1년 말 보유하는 자기주식의 금액은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자기주식처분이익은 자기주식 거래에서 생긴 **자본의 증가**이므로 **당기손익에 반영하지 않는다**. 6월 30일의 처분차익 60,000원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3월 15일 취득금액은 500주 × 800원 = 400,000원이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다시 취득한 것으로, 문제의 조건에 따라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차변에 자기주식 400,000원, 대변에 현금 400,000원을 기록한다.

② X: 6월 30일 처분대금은 300주 × 1,000원 = 300,000원이고,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300주 × 800원 = 240,000원이다. 차액 60,000원은 자기주식처분이익이지만, 자기주식 거래는 소유주와의 자본거래이므로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한다. 분개는 차변에 현금 300,000원, 대변에 자기주식 24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원을 기록한다.

③ O: 9월 15일 처분대금은 100주 × 700원 = 70,000원이고, 처분한 자기주식의 취득원가는 100주 × 800원 = 80,000원이다. 처분대금이 취득원가보다 10,000원 적으므로 **기존 자기주식처분이익에서 먼저 차감**한다. 6월 30일 발생한 자기주식처분이익 60,000원이 있으므로 차변에 현금 70,000원과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원, 대변에 자기주식 80,000원을 기록한다. 이 차감도 당기손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O: 연말 보유수량은 500주 − 300주 − 100주 = 100주이고, 자기주식의 장부금액은 100주 × 800원 = 80,000원이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의 금액은 자본에서 차감하며, **재무상태표나 주석에 별도로 공시**한다.

NoteBase

문 7. (주)한국은 (주)대한에 제품 X와 제품 Y를 이전하기로 하는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 총계약금액 ₩300,000
◯ 제품 X와 제품 Y는 개별 수행의무이며 각각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에 해당
◯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제품 X와 제품 Y에 각각 총계약금액의 60%와 40%를 배분
◯ 20×1년 10월 1일 제품 X를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행의무 이행
◯ 20×1년 12월 31일 현재 제품 Y는 수행의무 미이행

① ₩120,000
② ₩180,000
③ ₩210,000
④ ₩30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20×1년에 **수행의무를 이행한 제품 X**에 배분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한다. 따라서 당기 수익은 300,000원 × 60% = 180,000원이며, 아직 이행하지 않은 제품 Y의 배분액은 제외한다.

계산 과정

제품 X와 제품 Y는 각각 별도의 수행의무이며, 모두 한 시점에 이행된다. 따라서 총계약금액 300,000원을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에 따라 배분한 뒤, **각 수행의무를 이행한 시점**에 해당 배분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계약금액 배분: 주어진 배분비율은 X 60%, Y 40%이다. 제품 X의 배분액은 300,000원 × 60% = 180,000원이고, 제품 Y의 배분액은 300,000원 × 40% = 120,000원이다. 이 금액은 각 제품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인식할 수익에 해당한다.

제품 X의 수익 인식: 20×1년 10월 1일 고객에게 인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했으므로, 배분액 180,000원 전액을 당기 수익으로 인식한다. **한 시점에 이행되는 수행의무**이므로 인도일부터 연말까지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지 않는다.

제품 Y의 수익 인식: 20×1년 12월 31일 현재 수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배분액 120,000원은 **당기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품 Y에서 발생하는 당기 수익은 0원이다.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할 수익은 180,000원 + 0원 = 180,000원으로,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 1월 말 당좌비율은? (단, 당좌비율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20×1년 1월 초 (주)한국의 당좌비율은 100%(유동부채 ₩20,000)이었다.
◯ 20×1년 1월 중 상품을 ₩10,000에 매입하고, ₩5,000은 현금 지급하고 잔액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① 33%
② 60%
③ 167%
④ 2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입한 상품은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급액 5,000원만큼 당좌자산이 감소한다. 월말 당좌자산은 15,000원, 유동부채는 25,000원이므로 당좌비율은 60%이다.

계산 과정

1. 기초 당좌자산: 당좌비율은 유동부채에 대한 당좌자산의 비율로, 단기 채무를 재고자산의 판매 없이 갚을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계산식은 당좌비율=당좌자산유동부채×100\%이다. 1월 초 당좌비율이 100%이므로 **당좌자산과 유동부채가 같다**. 따라서 기초 당좌자산은 20,000원이다.

2. 월말 당좌자산: 매입한 상품 10,000원은 재고자산이므로 **당좌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금으로 지급한 5,000원만 당좌자산에서 차감하므로 월말 당좌자산은 20,000 − 5,000 = 15,000원이다.

3. 월말 유동부채: 상품 매입액 중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잔액은 10,000 − 5,000 = 5,000원이다. 이 금액은 **3개월 이내에 지급할 매입채무**이므로 유동부채에 가산한다. 따라서 월말 유동부채는 20,000 + 5,000 = 25,000원이다.

4. 월말 당좌비율: $\frac{15,000}{25,000} \times 100\% = 60\%$이다. 유동부채 100원당 당좌자산이 60원이라는 뜻이며, 반올림해도 60%로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9.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서 현행가치 측정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가치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 또는 결제에서 발생할 거래원가는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용가치는 기업이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 또는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며, 이행가치는 기업이 부채를 이행할 때 이전해야 하는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③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인수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④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 날에 발생할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④의 '거래원가를 가산한다'는 **'거래원가를 차감한다'**로 고쳐야 한다.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를 부담하고 수취할 대가에서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뺀 금액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받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할 가격이다. 이 가격에는 **자산의 궁극적인 처분이나 부채의 이전·결제에 드는 거래원가를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정가치를 처분대금에서 거래원가까지 뺀 순수취액과 혼동하면 안 된다.

② O: 사용가치는 자산의 사용과 궁극적인 처분으로 기업이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현금흐름이나 그 밖의 경제적효익의 현재가치이다. 이행가치는 부채를 이행하면서 이전해야 할 현금이나 그 밖의 경제적자원의 현재가치이다. 즉 사용가치는 **자산에서 얻을 효익**을, 이행가치는 **부채 이행에 필요한 자원**을 기업의 관점에서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 O: 사용가치와 이행가치는 미래현금흐름에 기초하므로 **자산 취득이나 부채 인수 때 발생한 거래원가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자산을 궁극적으로 처분하거나 부채를 이행할 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원가의 현재가치는 포함한다. 이미 발생한 취득·인수 원가와 미래 처분·이행 원가를 구분해야 한다.

④ X: 부채의 현행원가는 측정일 현재 동등한 부채에 대해 수취할 수 있는 대가에서 그날 발생할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거래원가를 지급하면 부채를 부담하여 실제로 확보하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취할 대가가 1,000원이고 거래원가가 20원이면 현행원가는 1,000 − 20 = 980원이다. 반면 자산의 현행원가는 동등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할 대가에 거래원가를 가산한다.

NoteBase

문 10. (주)한국은 종합원가계산을 사용하고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생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공(전환)원가는 공정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면, 가공(전환)원가 완성품환산량은? (단, 공손과 감손은 없다)

◯ 기초재공품 1,0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40%)
◯ 당기착수량 3,500단위
◯ 당기완성량 3,000단위
◯ 기말재공품 1,500단위(가공원가 완성도 70%)

① 3,650단위
② 3,900단위
③ 4,050단위
④ 4,500단위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선입선출법에서는 **당기에 수행한 가공작업만** 완성품환산량에 포함하므로, 기초재공품에 전기까지 투입된 작업량 400단위는 제외한다. 당기완성량과 기말재공품의 환산량을 합한 4,050단위에서 이를 빼면 3,650단위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완성품환산량은 미완성품에 투입된 작업량을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값이다. 가공원가가 공정 전반에 균등하게 발생하므로 수량에 가공원가 완성도를 곱해 계산한다. 선입선출법은 기초재공품을 먼저 완성한다고 보고, **전기에 수행한 작업과 당기에 수행한 작업을 구분**한다.

기초재공품의 당기 추가 작업: 기초재공품 1,000단위는 이미 40% 가공되었으므로 당기에 나머지 60%만 가공한다. 따라서 당기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은 1,000 × (100% − 40%) = 600단위이다.

당기착수·당기완성품: 당기완성량 3,000단위 중 기초재공품 1,000단위를 제외한 2,000단위는 당기에 착수하여 완성한 수량이다. 이는 당기착수량 3,500단위에서 기말재공품 1,500단위를 뺀 수량과도 같다. 이 2,000단위에는 당기에 가공작업 전부를 수행했으므로 환산량도 2,000단위이다.

기말재공품: 기말재공품 1,500단위는 가공원가 완성도가 70%이므로, 당기에 수행한 가공작업은 **완성품 1,050단위에 해당**한다. 환산량은 1,500 × 70% = 1,050단위이다.

총 가공원가 완성품환산량: 600 + 2,000 + 1,050 = 3,650단위이며, ①의 3,650단위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1. (주)한국은 단일제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20×1년도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500,000이라면, 20×1년도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단, 전부원가계산과 변동원가계산에서 판매가격, 변동원가 및 판매관리비는 동일하다)

◯ 기초제품재고 100단위
◯ 당기생산량 1,000단위
◯ 당기판매량 900단위
◯ 당기고정제조간접원가 ₩90,000
◯ 기초제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
◯ 20×1년 기초 및 기말재공품은 없으며, 선입선출법 적용

① ₩488,000
② ₩490,000
③ ₩512,000
④ ₩518,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30,000원이 당기 비용이 되고, 기말재고에 포함된 18,000원은 다음 기로 이월된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보다 **비용이 12,000원 더 커져** 영업이익은 488,000원이 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전부원가계산은 고정제조간접원가를 제품원가에 포함하여 판매된 제품의 몫만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한다. 반면 변동원가계산은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전액을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판매가격, 변동원가 및 판매관리비가 같으므로, 두 방법의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의 이월과 비용화에서 발생한다.

기말제품재고 수량: 기초재고 100단위 + 당기생산 1,000단위 − 당기판매 900단위 = 200단위이다. **선입선출법**에 따라 기초재고 100단위가 먼저 판매되고 당기생산분 800단위가 판매되므로, 기말재고 200단위는 모두 당기생산분이다. 기초·기말재공품은 없어 재공품에 남는 원가는 없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간접원가: 당기생산분의 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는 $\frac{90,000}{1,000}$ = 90원/단위이다. 따라서 기말재고에 포함된 금액은 200단위 × 90원/단위 = 18,000원이다. 이는 전부원가계산에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재고로 이월하는 금액**이다.

영업이익 조정: 기초재고에 포함된 30,000원은 변동원가계산에서는 전기에 이미 비용 처리했지만, 전부원가계산에서는 기초재고가 판매된 당기에 비용이 된다. 따라서 변동원가계산 영업이익에 기말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더하고, 기초재고의 고정제조간접원가는 뺀다. 전부원가계산의 당기 고정제조간접원가 관련 비용은 30,000 + 90,000 − 18,000 = 102,000원으로, 변동원가계산의 90,000원보다 12,000원 많다.

전부원가계산 영업이익은 500,000 + 18,000 − 30,000 = 488,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2. (주)한국은 정상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초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을 직접노무원가의 80%로 설정하였다. 20×1년 실제 제조간접원가 ₩190,000이 발생하였으며, 생산·판매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20×1년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한 후의 매출원가는? (단,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은 없다)

구분	작업 A (완성 및 판매)	작업 B (완성)	작업 C (미완성)
직접재료원가	₩ 120,000	₩ 100,000	₩ 80,000
직접노무원가	₩ 100,000	₩ 80,000	₩ 50,000

① ₩ 294,000

② ₩ 300,000

③ ₩ 306,000

④ ₩ 346,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판매된 작업 A의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는 300,000원이다. 전체 작업의 제조간접원가가 실제 발생액보다 6,000원 **과소배부**되었으므로, 이를 전액 가산한 조정 후 매출원가는 306,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배부차이 조정 전 매출원가: 정상개별원가계산에서는 직접재료원가와 직접노무원가는 실제 발생액으로, 제조간접원가는 예정배부율로 계산한다. 기초재공품과 기초제품이 없고 **작업 A만 완성되어 판매**되었으므로 조정 전 매출원가는 작업 A의 원가이다. 작업 A의 제조간접원가 배부액은 100,000 × 80% = 80,000원이며, 매출원가는 120,000 + 100,000 + 80,000 = 300,000원이다. 완성되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작업 B는 기말제품, 미완성인 작업 C는 기말재공품에 해당한다.

2.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배부차이는 **판매 여부와 관계없이 전체 작업의 배부액**을 실제 발생액과 비교하여 구한다. 작업 A·B·C의 직접노무원가 합계는 100,000 + 80,000 + 50,000 = 230,000원이다. 따라서 총배부액은 230,000 × 80% = 184,000원이고, 실제 발생액 190,000원보다 190,000 − 184,000 = 6,000원 적다. 이 6,000원이 제조간접원가 과소배부액이다.

3. 조정 후 매출원가: 문제에서 배부차이 전액을 매출원가에서 조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과소배부액을 재고자산에 나누어 반영하지 않고 **매출원가에 전액 가산**한다. 조정 후 매출원가는 300,000 + 6,000 = 306,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3. (주)한국은 제품 A와 제품 B를 2:3의 비율로 판매하고 있으며,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이 목표이익 ₩620,000을 달성하기 위한 제품 A의 판매량은? (단, 매출배합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법인세는 없다)

구분	제품 A	제품 B
단위당 판매가격	₩10,000	₩12,000
단위당 변동원가	₩7,000	₩8,000
총고정원가	₩1,000,000	

① 90개

② 180개

③ 270개

④ 450개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배합이 일정하므로 **A 2개와 B 3개를 한 묶음**으로 보면 묶음당 공헌이익은 18,000원이다. 고정원가와 목표이익을 충당하려면 90묶음이 필요하므로 제품 A의 판매량은 180개이다.

계산 과정

1. 제품별 단위당 공헌이익: 공헌이익은 판매가격에서 변동원가를 뺀 금액으로, 고정원가를 회수하고 이익을 내는 데 쓰인다. 제품 A는 10,000 − 7,000 = 3,000원, 제품 B는 12,000 − 8,000 = 4,000원이다.

2. 묶음당 공헌이익: 판매수량 비율이 A:B = 2:3으로 일정하므로 **A 2개와 B 3개를 한 묶음**으로 계산한다. 한 묶음의 공헌이익은 3,000 × 2 + 4,000 × 3 = 18,000원이다.

3. 필요한 묶음 수: 이익은 총공헌이익에서 총고정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목표이익 620,000원을 얻으려면 **고정원가에 목표이익을 더한 금액**만큼 공헌이익이 필요하다. 법인세가 없으므로 세금 조정 없이 1,000,000 + 620,000 = 1,620,000원을 사용한다. 필요한 묶음 수는 $\frac{1,620,000}{18,000}$ = 90묶음이다.

4. 제품 A의 판매량: 한 묶음에 제품 A가 2개씩 포함되므로 90 × 2 = 180개이다. 이때 제품 B는 90 × 3 = 270개로 매출배합 2:3이 유지되며, 제품 A의 판매량 180개는 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4. 결합원가의 배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실현가치법과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을 사용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면 추가가공 후 최종 개별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은 같아진다.

②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의 판매가치를 기준으로 배부하므로 분리점에서 모든 제품이 판매된다면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은 동일하다.

③ 순실현가치법은 결합원가를 결합제품의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부한다.

④ 분리점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결합원가를 시장가치기준으로 배부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추가가공 후 제품별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맞추는 것은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이다. 순실현가치법은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하므로, 최종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결합원가는 하나의 공정에서 여러 제품이 함께 생산될 때 분리점까지 공통으로 발생한 원가이다. 분리점은 각 제품을 개별적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며, 그 이후의 추가가공원가는 해당 제품에 직접 귀속한다.

① X: 순실현가치법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예상판매비용을 뺀 순실현가치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제품마다 최종판매가치에서 이러한 차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판매가치 대비 제품원가의 비율이나 매출총이익률이 같아지지는 않는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은 전체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각 제품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제품별 총원가를 정한 다음, 추가가공원가를 차감하여 배부할 결합원가를 구한다. 따라서 두 방법 모두 최종 제품의 매출총이익률을 같게 한다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

② O: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에서 각 제품의 판매가격에 수량을 곱한 판매가치에 비례하여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이에 따라 각 제품의 판매가치에서 배부된 결합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아진다. 모든 제품을 **추가가공 없이 분리점에서 판매**하면 그 결합원가가 제품원가가 되므로, 매출액에서 제품원가를 뺀 매출총이익의 비율도 제품별로 동일하다.

③ O: 순실현가치법의 배부 기준은 **최종판매가치에서 추가가공원가와 예상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최종 제품의 판매가치에는 분리점 이후의 가공으로 높아진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후속 비용을 차감하여 분리점의 가치를 추정한다. 이렇게 구한 제품별 순실현가치의 상대적 비율에 따라 결합원가를 배부한다.

④ O: 세 방법은 모두 제품의 **판매가치나 수익창출능력**을 고려하는 시장가치기준 배부 방법이다.
분리점판매가치법은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순실현가치법은 후속 비용을 차감한 추정 가치를 이용한다.
균등매출총이익률법도 최종판매가치에 동일한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결합원가 배부액을 정하므로
시장가치기준에 속한다.

NoteBase

문 15. (주)한국의 20×1년도 매출액은 ₩1,000,000이며, 매출총이익률은 20%이다. 원가 관련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20×1년도 당기총제조원가는?

구분	기초	기말
재공품	₩ 100,000	₩ 200,000
제품	₩ 300,000	₩ 250,000

① ₩ 750,000

② ₩ 850,000

③ ₩ 950,000

④ ₩ 1,0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매출총이익률이 20%이므로 매출원가는 800,000원이다. 여기서 제품 재고의 감소액 50,000원을 빼고 재공품 재고의 증가액 100,000원을 더하면 **당기총제조원가는 85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매출원가 계산: 매출총이익률은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매출액 1,000,000원 중 20%가 매출총이익이므로, 나머지 80%가 매출원가이다.
매출원가 = 1,000,000 × (1 − 20%) = 800,000원

2. 당기제품제조원가 계산: 당기제품제조원가는 당기에 완성되어 재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된 원가이다. 매출원가에는 기초제품 중 판매된 부분도 포함되므로, 매출원가에서 기초제품을 빼고 아직 판매되지 않은 기말제품을 더한다. 표의 제품 재고는 기초 300,000원, 기말 250,000원이다.
당기제품제조원가 = 800,000 − 300,000 + 250,000 = 750,000원
제품 재고가 50,000원 감소했으므로 **판매된 제품의 원가가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보다 50,000원 크다**.

3. 당기총제조원가 계산: 당기총제조원가는 당기에 생산을 위해 발생한 제조원가이다. 당기에 완성된 제품의 원가에는 전기에서 넘어온 기초재공품 원가가 포함되고, 당기에 투입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말재공품 원가는 빠져 있다. 따라서 당기제품제조원가에서 **기초재공품을 빼고 기말재공품을 더한다**. 표의 재공품은 기초 100,000원, 기말 200,000원이다.
당기총제조원가 = 750,000 − 100,000 + 200,000 = 850,000원
이는 ②의 850,000원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6.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며 제공할 수도 없다.

② 기타 당사자들, 예를 들어 규제기관 그리고(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가 아닌) 일반대중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가 유용하다고 여길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이러한 그 밖의 집단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다.

③ 재무정보의 예측가치, 확인가치는 상호연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무정보에 예측가치, 확인가치 모두가 있어야 그 재무정보는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④ 재무정보의 이용자들에게도 제공된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데 원가가 발생하며,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다른 곳에서 얻거나 그것을 추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원가가 재무정보 이용자들에게 발생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예측가치와 확인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다**. 재무정보는 두 가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으므로, 두 가치가 모두 필요하다는 설명은 잘못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일반목적재무보고서는 주요 이용자의 공통적인 정보 수요를 충족하도록 작성되지만, 개별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다**.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경제 상황과 전망, 산업 전망 등 다른 출처의 정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② O: 일반목적재무보고서의 주요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대여자와 그 밖의 채권자**이다. 이들은 필요한 재무정보를 기업에 직접 요구하기 어려워 일반목적재무보고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기관이나 이들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대중도 보고서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보고서의 주요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③ X: 예측가치는 이용자가 미래 결과를 예측하는 데 정보가 투입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성질이고, 확인가치는 과거의 평가를 확인하거나 변경하는 피드백을 제공하는 성질이다. 두 가치는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예측가치가 있는 정보는 확인가치도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당기 매출액은 미래 매출액을 예측하는 기초가 되는 동시에, 과거에 예상했던 당기 매출액과 비교하여 기존 예측을 평가하는 자료가 된다. 또한 재무정보는 **예측가치 또는 확인가치 중 하나만 있어도**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호연관되어 있지 않다'와 '모두가 있어야 한다'는 두 표현을 각각 바로잡아야 한다.

④ O: 재무정보 관련 원가는 정보를 작성·제공하는 측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용자에게도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원가**가 발생한다. 필요한 정보가 보고서에 없으면 다른 곳에서 그 정보를 얻거나 직접 추정해야 하므로 추가 원가가 든다. 따라서 정보의 효익과 원가를 고려할 때에는 이용자가 정보를 활용하거나 부족한 정보를 보완하는 데 드는 원가도 고려한다.

NoteBase

문 17.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3년 말 인식할 기계장치의 손상차손은? (단, 자산의 회수가능액 변동은 기계장치의 손상 또는 그 회복에 따른 것이라 가정한다)

◯ 20×1년 1월 1일 기계장치를 ₩8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8년, 잔존가치 ₩0, 정액법, 월할 상각)에 취득
◯ 20×3년 1월 1일 기계장치 지출 내역
— 자동화부품 설치비(유형자산 인식요건 충족): ₩120,000
— 기계장치 정기 수선비(일상적인 수선): ₩30,000
— 지출 후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는 변동 없음
— 자동화부품은 설치 후 즉시 사용함
◯ 20×3년 12월 31일 기계장치에 손상징후가 발생하여 회수가능액은 ₩540,000으로 추정

① ₩0
② ₩60,000
③ ₩80,000
④ ₩85,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유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자동화부품 설치비는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일상적인 수선비는 비용으로 처리한다. 20×3년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 600,000원이 회수가능액 540,000원을 초과하므로 **손상차손은 6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1. 지출 전 장부금액: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한다. 연간 감가상각비는 $\frac{800{,}000-0}{8}=100{,}000$원이다. 20×1년 1월 1일 취득하여 20×2년 말까지 2년간 사용했으므로, 20×3년 1월 1일 지출 전 장부금액은 800,000 − 100,000 × 2 = 600,000원이다.

2. 지출의 처리: 자동화부품 설치비 120,000원은 유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므로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에 가산**한다. 일상적인 수선비 30,000원은 당기비용이므로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출 직후 장부금액은 600,000 + 120,000 = 720,000원이다.

3. 20×3년 감가상각: 내용연수와 잔존가치가 변하지 않았으므로 남은 상각기간은 **8년에서 이미 사용한 2년을 뺀 6년**이다. 설치비가 가산된 장부금액 720,000원을 이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자동화부품은 1월 1일부터 즉시 사용하므로 월할 상각하더라도 12개월분을 반영한다. 20×3년 감가상각비는 $\frac{720{,}000-0}{6}=120{,}000$원이고, 손상 인식 전 기말 장부금액은 720,000 − 120,000 = 600,000원이다.

4. 손상차손: 손상징후가 있으므로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과 회수가능액**을 비교한다. 장부금액이 회수가능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여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까지 낮춘다. 따라서 손상차손은 600,000 − 540,000 = 60,000원이며, ②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18.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2년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10월 1일 2년 분 화재보험료 ₩240,000을 지급하고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 20×2년 말 장부마감 전에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하였다.
◯ 이 오류는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① 순자산 ₩210,000 증가
② 당기순이익 ₩90,000 감소
③ 선급보험료 ₩120,000 증가
④ 비용 ₩120,000 증가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중요한 전기오류이므로 전기에 과다 계상한 비용은 **기초이익잉여금**을 수정하고, 당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당기 비용**으로 인식한다. 20×2년의 12개월분 보험료 120,000원이 비용으로 추가 반영된다.

NoteBase

계산 과정

월 보험료: 2년분 보험료 240,000원은 24개월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한다. 월할 계산하므로 월 보험료는 $\frac{240,000}{24} = 10,000$원이다. 보험기간은 20×1년 10월부터 20×3년 9월까지이다.

전기오류 수정: 20×1년에 해당하는 기간은 10~12월의 3개월이므로 당시 비용은 10,000 × 3 = 30,000원이어야 한다. 전액 240,000원을 비용 처리했으므로 비용이 210,000원 과다 계상되고, 선급보험료와 이익잉여금은 각각 210,000원 과소 계상되었다. 중요한 전기오류는 **당기 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소급하여 수정**한다. 따라서 20×2년 기초 선급보험료와 기초이익잉여금을 각각 210,000원 늘린다.

당기 보험료 인식: 기초 선급보험료 210,000원은 아직 보험 혜택을 받을 21개월분이다. 이 중 20×2년에 경과한 12개월분은 10,000 × 12 = 120,000원이므로, **보험료 비용을 늘리고 선급보험료를 줄인다**. 수정 전에는 보험료 전액이 전기 비용으로 처리되어 당기 보험료 비용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수정으로 당기 비용은 120,000원 증가하고 당기순이익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한다.

기말 재무상태: 20×2년 말 남은 보험기간은 20×3년 1~9월의 9개월이므로 선급보험료는 10,000 × 9 = 90,000원이다. 수정 전에는 선급보험료가 없었으므로 수정 후 자산과 순자산은 각각 90,000원 증가한다. 이는 기초이익잉여금 증가 210,000원에서 당기순이익 감소 120,000원을 차감한 금액과도 같다.

따라서 수정 전과 비교한 20×2년 재무제표의 영향은 비용 120,000원 증가이며, ④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1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상 비용의 정의와 구분 및 인식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ㄴ.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ㄷ. 비용은 그 원천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발생하는 교환비용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교환비용으로 구분한다.
ㄹ.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정답 3번

ㄱ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재화·용역의 제공이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는 거래로 발생하는 **자원의 유출·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이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① 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자원 유출이나 사용 등에 따른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ㄴ

이미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소멸**하거나, **자원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의2(비용의 인식기준)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2. 과거에 자산으로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하거나 자원의 지출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때에 비용으로 인식

NoteBase

ㄷ

원천에 따른 교환·비교환 구분은 수익의 구분이다. 비용은 **성질에 따라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수익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ㄹ

비용은 성질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이전비용**과 **국가의 재정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이전비용을 제외한 국가운영비용**으로 구분한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비용의 정의와 구분)
② 비용은 그 성질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7.31>
1. 이전비용: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비용
2. 국가운영비용: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중 제1호의 이전비용을 제외한 비용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이 20×1년 7월 1일 인식할 사채할인발행차금은? (단, 기간은 월할 계산한다)

◯ 20×1년 1월 1일 액면금액 ₩1,000,000(표시이자율 6%, 매년 말 이자지급, 만기일 20×4년 12월 31일)의 사채를 발행하려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유보하였다.
◯ 20×1년 7월 1일 동 사채(사채권면상 발행일 20×1년 1월 1일)를 발행하여 현금 ₩980,000을 수취하였다.
◯ 사채발행 시 유효이자율은 액면이자율보다 높다.

① ₩20,000
② ₩30,000
③ ₩40,000
④ ₩50,0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수취액 980,000원에는 **발행 전 6개월분 경과이자** 3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한 사채 발행가액은 950,000원이므로, 액면금액과의 차이인 사채할인발행차금은 50,000원이다.

계산 과정

경과이자: 권면상 발행일은 20×1년 1월 1일이고 실제 발행일은 7월 1일이다. 연말에는 1년분 표시이자를 지급하므로, 발행 시 투자자로부터 **발행 전 6개월분 이자를 미리 받는다**. 연간 표시이자는 1,000,000 × 6% = 60,000원이며, 월할 계산한 경과이자는 $60,000 \times \frac{6}{12} = 30,000$원이다.

사채 발행가액: 경과이자는 사채 자체의 대가와 구분하므로, 현금 수취액에서 **경과이자를 차감**한다. 따라서 발행가액은 980,000 − 30,000 = 950,000원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 액면금액보다 발행가액이 낮을 때 그 차이를 인식한다. 유효이자율이 표시이자율보다 높다는 조건도 할인발행과 일치한다. 7월 1일 인식할 금액은 1,000,000 − 950,000 = 50,000원으로, ④의 금액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21.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변동대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이 대가를 받을 권리가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는 경우에도 약속한 대가는 변동될 수 있다.

②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③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 금액 중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기댓값 등으로 추정된 변동대가(금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④ 변동대가(금액)는 기댓값 또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중 기업이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금액)를 더 잘 예측할 것으로 예상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③의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가 잘못되었다. 추정한 변동대가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서만**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변동대가는 받을 금액뿐 아니라 **대가를 받을 권리 자체가 미래 사건에 달린 경우**에도 발생한다. 예를 들어 특정 성과를 달성해야만 받는 성과급은 지급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도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받을 대가가 달라진다.

② O: 계약에 변동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변동대가를 일률적으로 제외하지는 않는다. 다만 추정한 금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할 때에는 수익 환원에 관한 제약을 별도로 적용한다.

③ X: '환원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가격에 포함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변동대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나중에 해소될 때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의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위에서만** 추정액의 일부나 전부를 거래가격에 포함한다. 환원은 앞서 인식한 수익을 줄여 되돌리는 것을 뜻하며, 그 발생 가능성과 금액의 크기를 함께 고려한다. 따라서 기댓값 등으로 금액을 추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액을 거래가격에 포함할 수는 없다.

④ O: 기댓값은 가능한 대가 금액에 각각의 발생확률을 가중하여 합한 금액이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은 여러 결과 중 발생확률이 가장 높은 하나의 금액이다. 두 방법 중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를 더 잘 예측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유사한 계약이 많으면 기댓값이 적절할 수 있고, 성과급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두 결과만 있으면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이 적절할 수 있다.

NoteBase

문 22.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 기말상품재고액은? (단, 매출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여 상품을 판매한다)

총매출액 ₩1,250,000 매입에누리 ₩40,000
기초상품재고액 ₩180,000 매입할인 ₩20,000
총매입액 ₩1,580,000

① ₩700,000
② ₩720,000
③ ₩740,000
④ ₩760,000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매출원가의 25%를 이익으로 가산하므로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125%**이며, 매출원가는 1,000,000원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1,700,000원에서 이를 빼면 기말상품재고액은 700,000원이다.

계산 과정

순매입액: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상품의 매입원가를 줄이므로 **총매입액에서 차감**한다. 순매입액은 1,580,000 − 40,000 − 20,000 = 1,520,000원이다.

판매가능상품원가: 기초에 보유한 상품과 당기에 순매입한 상품이 판매 가능한 상품을 구성한다. 따라서 기초상품재고액에 순매입액을 더하면 180,000 + 1,520,000 = 1,700,000원이다.

매출원가: 이익을 가산하는 기준은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원가**이다. 따라서 매출액은 매출원가의 100% + 25% = 125%이며, 판매된 상품의 원가는 $\frac{1,250,000}{1+25\%} = 1,000,000$원이다.

기말상품재고액: 판매가능상품원가는 판매된 상품의 원가와 기말에 남은 상품의 원가로 나뉜다. 따라서 기말상품재고액은 1,700,000 − 1,000,000 = 700,000원으로, ①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3. 다음 건설계약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2년도 계약이익은? (단, (주)한국의 건설계약에 대한 통제는 기간에 걸쳐 이전된다)

◯ 공사계약금액: ₩9,000,000
◯ 공사기간: 20×1년 1월 1일 ~ 20×2년 12월 31일
◯ 20×1년 공사진행률(발생원가 기준 투입측정법): 45%
◯ 추정 공사계약원가: ₩7,000,000
◯ 공사대금 수취금액: 20×1년 ₩3,500,000
20×2년 ₩5,500,000

① ₩900,000
② ₩1,100,000
③ ₩1,450,000
④ ₩1,650,00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체 계약이익 2,000,000원 중 20×1년에 45%를 인식했으므로, 20×2년에는 **나머지 55%**에 해당하는 1,100,000원을 인식한다. 계약이익은 공사대금 수취액이 아니라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NoteBase

계산 과정

이 계약은 통제가 기간에 걸쳐 이전되므로 **공사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이익을 인식**한다. 발생원가 기준 투입측정법은 누적 발생원가가 추정 총공사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진행률을 측정한다. 제시된 계약금액과 추정 총원가를 기준으로 하면 누적 계약이익은 전체 계약이익에 누적 진행률을 곱하여 구한다.

전체 계약이익: 공사계약금액에서 추정 총공사원가를 뺀다.
9,000,000 − 7,000,000 = 2,000,000원

20×1년 계약이익: 첫해 진행률이 45%이므로 전체 계약이익 중 그 비율만큼을 첫해에 인식한다.
2,000,000 × 45% = 900,000원

20×2년 계약이익: 공사기간이 20×1년 1월 1일부터 20×2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20×2년 말에는 공사가 완료되어 누적 진행률이 100%가 된다. 따라서 **완료 시점의 누적 계약이익에서 전기 인식액을 차감**한다.
2,000,000 − 900,000 = 1,100,000원
이는 전체 계약이익 중 남은 55%에 해당하며, 선택지 ②의 1,100,000원과 일치한다.

공사대금 수취액: 20×1년의 3,500,000원과 20×2년의 5,500,000원은 현금 회수액이다. **대금 수취 시점과 수익 인식 시점은 구별**하므로 이 금액을 각 연도의 계약수익이나 계약이익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24. 다음 자료를 이용한 (주)한국의 20×1년도 간접법에 의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 20×1년도 당기순이익 ₩500,000
○ 20×1년 1월 1일 건물을 ₩500,000(원가모형, 내용연수 6년, 잔존가치 ₩20,000, 정액법, 월할상각)에 취득
○ 20×1년 중 장부금액 ₩120,000인 유형자산(기계장치)을 현금 ₩150,000에 처분
○ 자산과 부채의 변동

구 분	기초	기말
매출채권	₩150,000	₩200,000
재고자산	₩180,000	₩140,000
매입채무	₩120,000	₩100,000

① ₩480,000
② ₩500,000
③ ₩520,000
④ ₩550,00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간접법에서는 당기순이익에 현금 유출이 없는 **감가상각비 80,000원은 더하고**, 투자활동과 관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원은 뺀다**. 여기에 매출채권·재고자산·매입채무의 변동을 반영하면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520,000원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간접법은 발생주의로 계산한 당기순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현금 유출입이 없는 손익과 투자·재무활동 관련 손익을 조정하고 영업 관련 자산·부채의 변동을 반영하는 방법이다. 이 문제에서는 20×1년도 당기순이익 500,000원에서 시작한다.

건물 감가상각비: 정액법에서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균등하게 비용으로 배분한다. 1월 1일에 취득하였으므로 월할상각하더라도 12개월분을 반영한다. 감가상각비는 (500,000 - 20,000)/(6) = 80,000원이다. 당기순이익을 줄인 비용이지만 **당기의 현금 유출은 없으므로** 80,000원을 더한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기계장치의 처분대금 150,000원에서 장부금액 120,000원을 빼면 처분이익은 30,000원이다. 이 이익은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지만 처분대금은 **투자활동 현금흐름**이므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구할 때 처분이익 30,000원을 뺀다. 건물 취득대금과 기계장치 처분대금 자체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넣지 않는다. 이 두 손익 조정 후 금액은 500,000 + 80,000 - 30,000 = 550,000원이다.

매출채권 변동: 기초 150,000원에서 기말 200,000원으로 50,000원 증가하였다.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 중 **아직 현금으로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증가**한 것이므로 50,000원을 뺀다.

재고자산 변동: 기초 180,000원에서 기말 140,000원으로 40,000원 감소하였다. 매출원가에 포함된 재고 중 기초에 보유하던 재고가 사용된 부분은 당기의 매입 현금 지출과 다르므로, 재고 감소액 40,000원을 더한다. 매입채무의 변동은 별도로 조정한다.

매입채무 변동: 기초 120,000원에서 기말 100,000원으로 20,000원 감소하였다. 외상 매입대금의 미지급액이 줄어든 만큼 **현금 지급액이 당기 매입액보다 많으므로** 20,000원을 뺀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영업 관련 자산·부채 변동의 순조정액은 -50,000 + 40,000 - 20,000 = -30,000원이다. 따라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550,000 - 30,000 = 520,000원으로, ③의 금액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5.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저작권,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등과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하여 보호된 시장에 대한 지식, 기술적 지식은 많은 제약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

② 무형자산의 미래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능력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에서 나오며, 법적 권리가 없는 경우에는 통제를 제시하기 어렵다.

③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④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①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시장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나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 같은 법적 보호는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여 기업이 그 효익을 통제**할 수 있게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은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다. 저작권이나 법에 의한 종업원의 기밀유지의무는 타인이 해당 지식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제한한다. 따라서 법적 보호는 효익 발생을 막는 제약이 아니라 **기업이 효익을 얻고 타인의 접근을 제한하는 통제의 근거**가 된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없다'를 '미래 경제적 효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업이 이를 통제할 수 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무형자산의 통제는 그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업이 얻고, 타인이 그 효익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수 있는 능력이다. 법원에서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이러한 능력을 뒷받침하므로, 법적 권리가 없으면 통제를 입증하기 어렵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도 효익을 통제할 수 있으므로 **법적 권리가 통제의 필수조건은 아니다**.

③ O: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할 때 기업은 그 자산으로부터 얻을 미래 경제적 효익과 그 유입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지급한다. 즉, **효익 유입 확률에 대한 기대가 취득가격에 반영**된다. 따라서 효익이 유입되는 시기나 금액에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개별 취득한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 유입 가능성에 관한 인식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본다.

④ O: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기업의 평판이나 시너지 등과 관련하여 생기지만, 기업에서 분리하거나 계약상·기타 법적 권리로 식별할 수 있는 자원이 아니다. 또한 이를 창출하는 데 든 원가를 기업 전체의 사업 유지·개발 등에 든 지출과 구분하여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식별가능성과 신뢰성 있는 원가 측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NoteBase